

평균나이 73세... 꽃노년 단원들의 '청춘 하모니'

광주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2011년 창단 만 60세↑ 가입조건 매주 월·금 하루 2시간 합주 연습 비전공자 아마추어 단원 30여명 "내 나이가 어때서... 삶 활력 생겨"



지역 유일의 노인 악단인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가 12일 오전 10시 국립광주어린이박물관 대강당에서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

"F 코드가 뭐여? 교수원 길 아녀?" 12일 오전 10시 국립광주어린이박물관 대강당에서 관악 악기들의 합주 소리가 쉴 새 없이 새어 나온다. 평균나이 73세 단원들이 모인 아마추어 악단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의 합주 연습 현장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특별공연 연습에 여념이 없는 단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이날의 연습곡은 동요행진곡과 아리랑 등...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드럼, 키보드 등을 연주하는 30여명의 단원들은 서로서로 물으며 멜로디를 따라간다. 2시간 동안 계속된 연습에 "멜로디가 빨라서 너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2시간 동안 계속된 연습에도 고령의 단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야말로 열정 가득한 만학이 아닌, 만악(樂)의 연주자들이다.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는 2011

년 창단된 아마추어 악단으로 지역 유일의 실버 오케스트라다.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악기 비전공자들이 모여 무대를 꾸민다. 단원들의 평균 나이가 73세에 이르며 최고령 단원이 82세다. 단원 대부분 은퇴자로 음악을 통해 인생 2막을 꾸려가고 있다.

연주 소모임으로 시작한 조직이라 변변한 연습공간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공간대여사업 '1관 1단 문화예

술 커뮤니티'에 선정되면서 2021년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단원들은 이곳으로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기도 쉽지 않아 우여곡절을 겪었다. 연습공간이 없어 지인 소개로 담양까지 가 연습을 한 적도 있었지만, 연습은 계속됐다.

서영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 단장은 "사조직이라 우리만의 전용 공간이 없다. 철세처럼 물건이 되는 공간을 옮겨다

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무대가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 수준급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조순자 부단장은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분위기가 좋다. 부부 단원들도 꽤 돼 조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것 같다"며 "70대 노인들이 모인 관악단은 광주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플룻을 연주하는 조규열(77) 씨는 "나 이 들수록 손가락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 빠른 장단의 곡이 특히 연주하기 어렵다. 합주에 맞추려면 집에서 연습해야겠다. 큰일이다"며 "몸은 느려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앞선다. 퇴직 후 삶이 음악으로 즐겁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단원으로 활동 중인 장영자(78) 씨는 "전업주부로 살다 우연히 모임에 들어오게 됐다. 이 나이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악기소리를 통해 단원들의 화합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위문공연, 초청공연 등 70회 이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2016년 광주 서구가 주최한 제1회 아마추어 음악 활동 경연대회에서 대상, 2017년 광주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경연대회에서 특별상, 2018년 실버문화페스티벌에서 사이니스타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실버윈드오케스트라는 6월부터 12월까지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30분의 행복'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공연은 매달 넷째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며 첫무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국립광주어린이박물관 대강당에서 예정돼 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ACC 제1기 전시해설사 16명 배출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활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전시해설사 16명을 배출했다. 문화전당이 자체 전시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전시 안내와 이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할 해설사를 길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제1기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1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ACC 문화교육실에서 전시해설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

료생은 전시 관련 사전교육을 거쳐 ACC에서 열고 있는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 '걷기, 해매기', '물입미감-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의 전문 자원봉사자로 본격 활동하게 된다.

ACC는 올해 처음으로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문화전당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전시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깊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1기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20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6대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도선인 기자



성혜숙 민화작가가 재현한 '해학반도도'.

성혜숙 작가 제공

성혜숙 민화작가 '해학반도도' 재현

14일까지 무등갤러리서 개인전 원작 현재 美 데이턴미술관 소장 조선시대 왕실 변영·무병장수 기원

조선시대 왕실의 변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그려진 길상화 '해학반도도'가 오는 14일까지 광주 동구 무등갤러리에서 전시된다. 광주에서 민화 대가로 꼽히는 성혜숙 작가가 작업한 그림으로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직접 재현한 '해학반도도'를 선보이고자 한다.

'해학반도도' 원화는 현재 미국 데이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비슷한 류의 작품은 국내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혜숙 작가는 국외 문화재 한점

을 국내에 남긴다는 각오로 1년여에 걸쳐 '해학반도도'를 재현했으며 원화와 똑같이 배경을 금분으로 처리해 원화에 버금가는 생동감이 넘친다.

'해학반도도'는 십장생도(十長生圖) 소재 중에서 바다(海), 학(鶴)과 복숭아(蟠桃)를 강조해 그린 그림이다. 특히 그림에서 복숭아는 3000년마다 한번씩 열매가 열려 장수를 상징한다. 또 학과 바다와 복숭아가 어우러진 선경(仙境)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해학반도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실의 처소를 장식하거나 각종 행사를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며 특히 조선말기에 크게 유행한 길상화다.

'해학반도도' 이외에도 성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민화작가로서 길을 걸어오며 아끼고 남겨둔 대표작들을 동시에 공개했다. '화조도 병풍', '화점도 병풍'을 비롯해 '모란도', '일월오봉도' 등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여러 부채들을 화폭에 담은 신작 '백선도'가 눈길을 끈다.

성 작가는 민화 불모지 광주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민화 작업에 전념했다. 한국전통민화협회공모전 최우수상, 한국민화협회공모전 특별상, 한국현대미술협회 심천국제아트페어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현대민화협회 초대작가로 활동하면서 한국민화협회 광주·전남 지부장, 한국전통민화협회 이사, 백야민화연구소 원장을 맡고 있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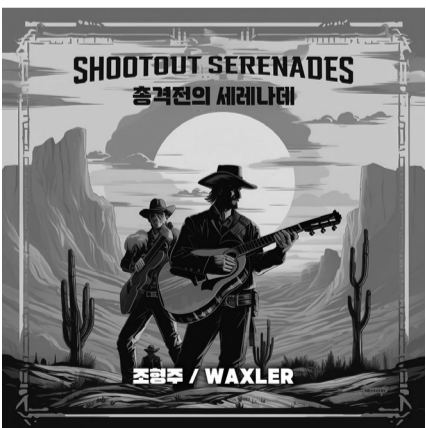
광주 출신 음악인 조형주 첫 미니앨범 발매

챗GPT 통해 컨셉·장르 설정 '충격전'...일렉트릭 팝 장르

광주 출신 음악인 조형주 씨(활동명 웨슬러·Waxler)가 첫 일렉트릭 팝 미니앨범 'Shootout Serenades(충격전의 세레나데)'를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인공지능 기술 챗GPT와의 대화에서 컨셉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눈길을 끈다.

앨범 'Shootout Serenades'에는 서부영화 음악과 같이 강렬하면서도 드럼 비트가 돋보이는 곡 'Old west gunfighter', 'Point and shoot'과 트렌디한 일렉트릭 팝 장르의 곡 'pinata' 등 3곡이 담겼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음원을 작곡한 조형주 씨는 CMB광주 방송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아시아경제, AI타임스를 거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을 취재해왔다. 현재는 외국계 언론사



광주 출신 음악인 조형주 씨가 발표한 일렉트릭 팝 미니앨범 'Shootout Serenades(충격전의 세레나데)'. 본인 제공

에이빙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형주 씨는 "곡 컨셉은 챗GPT와의 대화에서 소스를 얻었고,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음악 톨과 미디(MIDI) 프로그램으로 곡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극단 토박이 연극 활동 수강생 모집

삐딱이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터

극단 토박이가 교육 프로그램 '삐딱이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터'에 참여할 청소년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삐딱이들의 생기발랄 연극놀이터'는

극단 토박이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교육 활동은 오는 28일 시작해 9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 15회에 걸쳐 광주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며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062-222-6280) 또는 (010-3828-6280)로 하면 된다.

극단 토박이 관계자는 "문학, 음악, 웹툰, 영상,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